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6월 22일
(월요일)

시사프리 11면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의장 성임제)는 지난 19일 강북구 소재 우이동 옥류현에서 6월 월례회의를 가졌다.

이날 월례회의에는 의장협의회 성임제 의장(강북구의회)을 비롯해 도봉구의회 조숙자 의장, 성북구의회 임태근 의장, 강북구의회 김동식 의장, 노원구의회 김승애 의장 등 15개 구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의 인사말과 의장협의회 주최구인 강북구의회 의장의 환영사, 보고사항, 공지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성임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5월 실시한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서울시 구의원들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서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와 비가 오지 않아 심각해진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어 강북구의



회 김동식 의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강북구는 천혜의 자원인 아름다운 북한산이 있으며 3.1만세 운동의 산실인 봉황각,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묘소와 4.19 국립묘

지, 그리고 ‘반달’의 작곡가 윤극영 선생 생가가 있는 역사문화관광으로서 34만 구민과 14명의 의원들이 소통을 통해 민주주의를 꽃피우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북구의회 김영준 의원이 지방의

정대상을 수상했으며, 한마음체육대회 추진 유공직원 격려, 의회사무국 직원 사기진작 방안과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7월 월례회의 개최 등 향후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유영일 기자

서울포스트 8면



우이동 옥류현에서 개최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6월 월례회의서 각 구 의장들이 화이팅을 하고 있다.

구의회 의장협의회 6월월례회의 강북구에서 개최

강북구의회 김영준 의원 지방의정대상 수상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6월19일 11시 우이동 옥류현에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6월 월례회의를 주최했다.

이날 월례회의에는 의장협의회 강북구의회 성임제 의장을 비롯하여 15개 구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의 인사말과 의장협의회 주최구인 강북구의회 의장의 환영사, 보고사항, 공지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성임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5월 실시한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서울시 구의원들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서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와 비가 오지 않아 심각해진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강북구의회 김동식 의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강북구는 천혜의 자원인 아름다운 북한산이 있으며 3.1만세 운동의 산실인 봉황각,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묘소와 4.19 국립묘지, 그리고 ‘반달’의 작곡가 윤극영선생 생가가 있는 역사문화관광으로서 34만 구민과 14명의 의원들이 소통을 통해 민주주의를 꽃피우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북구의회 김영준 의원이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하였고, 한마음체육대회 추진 유공직원 격려, 의회사무국 직원 사기진작 방안과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7월 월례회의 개최 등 향후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

강북구의회 주최, 성임제 협의회 의장“메르스 사태의 기쁨을 슬기롭게 극복하자”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6월 19일 11시 우이동 옥류헌에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성임제) 6월 월례회의를 주최했다.

이날 월례회의에는 의장협의회 강동구의회 성임제 의장을 비롯하여 13개 구의회 의장(강북구,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동작구, 송



▲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마치고 의장들이 함께한 모습.

파구, 관악구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의 인사말과 의장협의회 주최구인

강북구의회 의장의 환영사, 보고사항, 공지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성임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5월 실시한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서울시 구의원들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서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와 비가 오지 않아 심각해진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말했다.

이어 강북구의회 김동식의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강북구는 천혜의 자원인 아름다운 북한산이

체가 선정됐고 “참다운 자연,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이 도봉구 우이천로44길 일대 골목길 환경 개선으

간 시간대에는 청소년들의 비행행위가 빈번한 곳이었다. 대상을 수상한 ‘참다운 자연, 미래

과 소통하고,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살고 싶은 녹색도시 도봉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있으며 3.1만세 운동의 산실인 봉황각,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묘소와 4.19 국립묘지, 그리고 ‘반달’의 작곡가 윤극영선생 생가가 있는 역사문화관광구로서 34만 구민과 14명의 의원들이 소통을 통해 민주주의를 꽃피우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북구의회 김영준 의원이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하였고, 한마음체육대회 추진 유공직원 격려, 의회사무국 직원 사기진작 방안과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점

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7월 월례회의 개최 등 향후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구의회 뱃지를 한자에서 한글 표기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강제적 사항은 아니지만 전국협의회에서 지난 회의 때 통과하였으나 한글 표기는 어색한 점이 있다는 의견과 국회가 한글 표기로 바꾸었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각 구의회에서 적절히 시행하기를 권장하였다. 이에 송파구의회 임춘대 의장은 “뱃지의 한글 표기로 바꾸는 것은

구의회의 휘장을 비롯하여 깃발 같은 모든 것을 바꾸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국회가 바꾼다 하여 기초의회가 바로 따라서 바꾸려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뱃지의 한자표기와 한글 표기에 따른 변경을 생각하기 이전에 기초의회로서 할 일들을 해 놓고 해도 늦지 않다”며 “바로선 기초의회가 된다면 더 이상 언론을 통해 기초의회의 위상을 낮추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각 자치구 의장단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

강북구의회 김영준 의원 지방의정대상 수상과 향후일정 논의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6월19일 오전 11시 우이동 옥류헌에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6월 월례회의를 주최했다.

이날 월례회의에는 의장협의회 강동구의회 성임제 의장을 비롯하여 15개 구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의 인사말과 의장협의회 주최구인 강북구의회 의장의 환영사, 보고사항, 공지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성임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5월 실시한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서울시 구의원들의 화합과 소통의 공간으로서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메르스 사태와 비가 오지 않아 심각해진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

자”고 말했다.

강북구의회 김동식 의장은 환영사에서 “우리 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강북구는 천혜의 자원인 아름다운 북한산이 있으며 3.1만세 운동의 산실인 봉황각,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의 묘소와 4.19 국립묘지, 그리고 ‘반달’의 작곡가 윤극영선생 생가가 있는 역사문화관광구로서 34만 구민과 14명의 의원들이 소통을 통해 민주주의를 꽃피우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북구의회 김영준 의원이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고, 한마음체육대회 추진 유공직원 격려, 의회사무국 직원 사기진작 방안과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7월 월례회의 개최 등 향후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9일 열린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 6월 월례회의 모습.